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

3. 27(금) 오후 3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3. 27.(금)	담당부서	신북방통상총괄과
담당과장	전응길 과장(044-203-5680)	담 당 자	정경화 사무관(044-203-5682)

신북방 핵심 우즈벡과 워킹그룹 회의 개최

- 교역투자 확대 위한 실질 방안 논의, 플랜트·인프라 프로젝트 점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신북방지역 핵심 거점이자 중앙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제3차 한-우즈벡 워킹그룹 회의를 3월 27 화상으로 개최하였다.

○ 우리 측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, 우즈베키스탄 측은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(Laziz Shavkatovich Kudratov)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서, 양국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

□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지속가능한 교역 확대 기반 구축을 위해 한-우즈벡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 연구,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프로젝트 추진, 전자무역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.

* 양국 교역액(백만 달러) : 949 ('16) → 1,198 ('17) → 2,139('18) → 2,358 ('19)

□ 또한,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벡 수도 타슈켄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합의한 플랜트·인프라 협력 프로젝트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, 우리 기업의 관심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특히,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양국이 화상회의, 전화회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,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정경화 사무관((☎ 044-203-56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